
정책참고자료

2019-15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평화, 그리고 화해·협력, 자전거로 DMZ를 달린다	4
------------------------------	---

2 국민권익위원회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강화될 예정이다	8
-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표시토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	

3 중소벤처기업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나서	10
- '19.8.1일부터 전국적으로 관계부처 특별단속 일제 실시 -	

4 교육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3
-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동네에 과학관이 찾아왔어요	20
- 8월 7일 '찾아가는 과학관' 개최로 2019년도 두드림 프로젝트 시동 -	

6 문화체육관광부

광복절 맞아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떠나요	25
- 10개 권역 역사여행 코스 선정,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만들기 등 이벤트 진행 -	

7 농림축산식품부

가을철 영농 대비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32
- 2019.8.12.~9.6일까지, 전국 125개 시·군 순회 수리-	

8 환경부

다회용컵, 어디 있나요? 우리 다함께 써봅시다	34
- 환경부·지자체·시민사회, 1회용컵 사용 억제와 다회용컵 생활화를 위한 '날마다 다회용컵(데일리 텀블러)' 공익활동 펼쳐 -	

9 고용노동부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 폭염경보 발령(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 41

10 여성가족부

해양레포츠 즐기면서 사회성·도전정신 길러요!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및 종사자 연합캠프 실시(8.12 ~ 14) -

————— 45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이전기업 혜택 대폭 확대.... 수도권 지역 17개사 이전 완료

————— 49

12 해양수산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위한 해시태그(#) 공모전 개최

————— 59

평화, 그리고 화해 · 협력, 자전거로 DMZ를 달린다!

- Tour de DMZ 2019 국제 청소년 도로 사이클 대회 (8.30~9.3, 고성~강화) -
- Tour de DMZ 2019 마스터즈 도로 사이클 대회 (8.30~9.1, 고성~연천) -
- Tour de DMZ 2019 인제 동호인 자전거 대회 (8.31~9.1, 강원도 인제 인원) -

-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 연맹이 주관하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 대회’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접경지역 일원에서 “평화, 그리고 화해 ·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를 슬로건으로 5일간 개최된다.
- 이번 대회는 국내 · 외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와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즈 도로사이클대회’ 그리고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인제 동호인 자전거투어’ 등 총 3개 대회로 구성된다.
-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는 국제사이클연맹(UCI)이 공인하는 아시아 유일의 청소년 자전거 대회로 강원도 고성(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하여 인제-화천-연천-김포, 강화(고인돌체육관)까지 5일간(8.31~9.3) 510Km 구간에서 진행된다.
- ‘마스터즈 도로사이클대회’는 3일간(8.31~9.1) 고성에서 연천까지

320km 구간에서 개최되고, ‘인제 동호인 자전거 대회’는 강원도 인제 일원에서 1일차(8.31) 강원도 시·군 대항 단체전과 2일차(9.1) 전국 동호인 개인전이 각각 펼쳐진다.

□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였다.

○ 특히, 이번 대회는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이 새롭게 추가되어 분단의 현장을 체감하고, 평화를 더욱 염원하며 질주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대회구간 코스를 31km(‘18년 479km, ‘19년 510km) 연장하여 대회의 난이도를 높였으며, 일반인이 참가하는 동호인 대회를 인제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배 전국 자전거 대회’와 연계하여 2일간 개최함으로써 자전거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비무장지대(DMZ) 지역은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화해·협력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적 자전거 대회로 거듭나고, 접경지역 이해의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추진배경

- 비무장 지대(DMZ)와 접경지역을 배경으로 세계인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

□ 대회 개요

- (기간/장소) '19. 8. 30(금) ~ 9. 3(화) / 강원 · 경기 · 인천 접경지역
- (주최/주관) 행안부 · 인천 · 경기 · 강원도 / 대한자전거연맹
- 주요내용

대 회 명	기 간	구 간	주요내용
①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 대회	8.30~9.3 (5일)	고성-인제-화천-연천-김포-강화 510km	◦ (참가자) 국내외 청소년 25개팀 230여명(잠정) ◦ (개막식) 8.30/고성통일전망대 ◦ (폐막식) 9.03/강화고인돌체육관 ◦ (경기방식) 개인 및 단체별 순위경쟁 * 구간별 시상, 폐막식 종합시상
② 마스터즈 도로사이클 대회	8.30~9.1 (3일)	고성-인제-화천-연천 321km	◦ (참가자) 국내 25개팀 225여명(잠정) ◦ (경기방식) 개인 및 단체별 순위경쟁 * 종합시상 : 연천공설운동장(9.1)
③ 일반 동호인 도로사이클 대회	8.31~9.1 (2일)	인제군 순환 86km	◦ (참가자) 국내 동호인 1,000여명 ◦ (개.폐막식) 인제군 원통생활체육공원 ◦ (경기방식) 개인 및 단체별 순위경쟁 - 연령 및 남.여 구분 시상



UCI NATION'S CUP JUNIOR

행정안전부

TOUR DE DMZ

BEYOND
PEACE

2019 International Road Cycling Tour

"평화 그리고 화해·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

| 2019 국제자전거대회 |

대회일정 : 2019.8.30(금) ~ 2019.9.3(화)

대회장소 : 고성군, 인제군, 화천군, 연천군, 김포시, 강화군

| 참가대상 |

국제청소년사이클대회 : 외국 15개팀 / 국내 고등부 10개팀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 : 마스터즈사이클투어(MCT) 등록 25개팀

문의 : 02-420-4247

www.tourdedmz.or.kr

| 주최 | 행정안전부

강원도

파주시

인천광역시

| 주관 |

대한자전거연맹

대한자전거연맹

| 후원 |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평창군

연천군

고양시

김포시

강화군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강화될 예정이다

-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표시토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는 공항이나 철도객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ED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다.

AED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이 곤란했다.

- 1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에는 AED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내 AED 설치여부와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일부 역에는 역무원에게 물어보아도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음. ('19. 6월 국민신문고)
-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 AED위치표시가 있으면 위급상황시 응급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19. 1월 국민신문고)
- AED 위치 안내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18. 10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나서

- '19.8.1일부터 전국적으로 관계부처 특별단속 일제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월 1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발표자 : 김학도 차관)하였다.

동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라벨갈이 근절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해('18.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

*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소진공,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원회(민간)

** 민관협의회(5회) 개최, 합동캠페인(2회) 추진, 대국민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배포, 29개 업체(22명 형사입건, 296,189점 의류 등) 적발(서울시, 관세청)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되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19.8.1(목)부터 '19.10.31(목)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53조의2(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 13개 지방청의 24개 경찰서 참여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하여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한편,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하여 업계 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 서울(창신, 장위, 독산), 대구(평리, 대봉), 부산(범일), 경기(남면)

이와는 별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하여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하여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8월 2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다.
-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였다.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된 불임·난임 사유를 별도 휴직사유로 신설하고, 교원이 1년 이내 범위에서 불임·난임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 교원이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시 ①수의 계약 대부 또는 매각 ②사용료 감액 대부 ③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붙임】 참고1. 8.2.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참고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순	법률안	주요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이종배(한) 12271 이동섭(바) 6961 광상도(한) 16167 김영호(민) 17634 전희경(한) 2784 백혜련(민) 7760 홍의락(민) 8468 이양수(한) 9144 윤상직(한) 11745 권미혁(민) 13454 김한정(민) 13980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 '20년 3월부터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상향 이관 •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 - '19년 9월부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이관 시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전담기구 및 심의위에 학부모 3분의 1 이상 참여 - 학교자체해결 여부 및 가·피해학생 조치 심의 시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 및 심의위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 가·피해학생 불복 절차 일원화·간소화 - '20년 3월부터 가·피해학생 재심을 폐지하고, 교육장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불복 절차 일원화·간소화
2	교육공무원법 함진규(한) 6296	• 질병휴직의 사유에 포함된 불임·난임 치유를 별도 휴직사유로 신설하고, 신청 시 임용권자는 필수적으로 승인하도록 함
3	사립학교법 장정숙(민) 13631 이태규(바) 14526	•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 •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 신청 시, 징계사유 및 의원면직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정부 4651 김성찬(한) 15311	•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 추가 •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 적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순	법률안	주요내용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시 ①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②사용료 감액 대부 ③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 범위 확대
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설훈(민) 9029	•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허용 및 관련 기관·단체 자료 제출 의무화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유은혜(민) 13109	• 모든 대학교원은 각 법률에서의 준용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성 확보
7	한국고전번역원법 김한정(민) 12644	•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8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김한정(민) 12639	•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 '19년 9월부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 전담기구의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에 따라 학교자체해결 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 개최 요청 시 자치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

한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설치하여
 - 현재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의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담기구 및 심의위에 학부모 3분의 1 이상 참여 보장) 학교자체해결제 및 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학교 전담기구 및 지원청 심의위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가해학생 불복 절차 일원화 간소화) '20년 3월부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피·가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조치에 불복할 경우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 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였다.

* 현재는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며,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동네에 과학관이 찾아왔어요

- 8월 7일 '찾아가는 과학관' 개최로 2019년도 두드림 프로젝트 시동 -

- ◇ 두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권역별 과학문화시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관 개최·운영(총 10회)
- ◇ 생체모방과학(관람체험), 과학놀이터(작동체험), 과학교실(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실습) 등 다양한 과학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두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 7일부터 전국 10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과학관'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 두드림 프로젝트는 과학관 등 기존 과학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찾아가는 과학관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는 이동형 과학전시·체험공간이다.

□ 이번 찾아가는 과학관은 각 권역별로 선정된 대상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생체모방과학전시, 과학놀이터, 과학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생체모방과학전시는 생체모방 재료, 생물의 기능, 로봇·인공지능, 우주·VR 등 총 4개 주제로 구성되며, 해당 전시관에서는 생물의

과학적 원리를 모방한 생활품(상어비늘 수영복, 거미줄 모방유리, 아르마딜로 백팩 등) 및 로봇제품(로봇팔·다리, 곤충모방 로봇, 아이언맨 슈트) 등을 관람·체험할 수 있다.

- **과학놀이터**(플레이사이언스)는 물리적 운동을 알기 쉽게 구현한 작동 체험존(거중기, 자이로드롭, 테슬라코일 등), 전시물을 직접 만지며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존(아치다리, 3D퍼즐, 화석발굴 등), 생물·광물에 담긴 과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비교관찰존**(떡이사슬, 스테노의 법칙 등)등 3개 존으로 구성된다.

- **과학교실**에서는 화석레플리카 및 우주슬라임 만들기, 베르누이 실험, 천체관측, 3D펜 실습, 로봇댄스 코딩 등 권역별로 특색 있게 마련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찾아가는 과학관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

□ 자세한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회차	개최장소	운영일정	회차	개최장소	운영일정
1	(양주)회암사지박물관	08.07 ~ 08.19	6	(밀양)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10.16 ~ 10.28
2	(포천)포천시종합체육관	08.21 ~ 09.02	7	(계룡)계룡군문화예술의전당	10.30 ~ 11.11
3	(화천)사내면종합문화센터	09.04 ~ 09.16	8	(순천)순천만국가정원	11.03 ~ 11.25
4	(충주)탄금호조정경기장	09.18 ~ 09.30	9	(남원)춘향테마파크	11.27 ~ 12.09
5	(고령)고령군테니스장	10.02 ~ 10.14	10	(제주)공공수장고	12.11 ~ 12.23

- 과기정통부는 “이번 찾아가는 과학관이 전국에 과학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광복절 맞아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떠나요

- 10개 권역 역사여행 코스 선정,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만들기 등 이벤트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광복절맞이 국내여행을 추천, 지원하는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광복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광복절이 될 전망이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준비한 10개의 역사여행 코스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하 테마여행 10선)'과 연계하여 테마 10선 각 권역 내 특별 코스로 선정되었다. 각 선정 코스는 역사관광지 1~2곳과 테마여행 10선의 대표 코스 중 1~2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여행과 함께 다양한 자연환경, 체험, 즐길 거리, 문화예술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각 권역별 추천 코스는 붙임 1 참고

선정된 코스와 관련한 이벤트는 ▲광복절을 맞아 가고 싶은 역사여행지 투표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로 진행된다.

광복절 기념 가고 싶은 역사여행지 투표 이벤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테마여행 10선 누리소통망(블로그)을 통해 '광복 역사여행 10선' 코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코스를 선택하고, 해당 코스를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남기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추천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1박 2일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총 100팀을 선정 한 후 여행 지원비를 지급한다. 여행 경비를 지급받은 지원자는 8월 15일에서 31일 사이에 여행을 떠난 후 후기를 작성해야 한다. 우수 후기는 영상 부문, 사진/글 부문으로 나누어 별도로 시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테마여행 10선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 * 대한민국 구석구석 테마 10선 누리집: <https://ktourbest10.visitkorea.or.kr>
- * 테마여행 10선 누리소통망(블로그): <https://blog.naver.com/ktourbest10>
- * 테마여행 10선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tourbest10>

문체부와 관광공사 정책담당자는 “이번 특별이벤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토와 역사,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선열들의 발자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테마여행 10선의 대표관광지 등 곳곳에 숨겨진 국내여행의 명소들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31운동부터 민족의 평화까지 평화역사이야기 여행

민족의 독립의지와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31운동 순국기념관부터

파주의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동산까지!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부터
희망찬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역사 여행!



총 경로·소요시간



차량으로 이동 시 총 3시간 가량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1박 2일간의 여행 일정에 적합합니다!
(대표 체험거리 : 수원 통닭거리, 인현 월미도 유람선)

추천 숙박



민족의 독립정신과 시원한 바다를 동시에! 드라마틱 강원여행

항일 독립 운동의 전초 기지 중 하나였던 오대산 월정사!

그곳에 담긴 민족의 독립정신을 느껴본 뒤
시원한 경포해변으로~!
속초 시립박물관에서 우리 조상들의 생활까지
엿보는 알찬 여행!



총 경로·소요시간



차량으로 이동 시 총 1시간 55분 가량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1박 2일간의 여행 일정에 적합합니다!
(대표 체험거리 : 평창 발왕산 케이블카)

추천 숙박





한마음으로 뭉쳤던 민족의 이야기 선비이야기 여행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해낸 독립 운동의 산실, 안동 임청각부터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탈 수 있는 레일바이크까지!



총 경로·소요시간



차량으로 이동 시 총 3시간 가량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1박 2일간의 여행 일정에 적합합니다!

(대표 체험거리 : 대구 근대문화체험관 개산예가(근대복 체험), 문경 도자기박물관 체험)

추천 숙박



광복의 기쁨과 민족 분단의 아픔 남쪽빛 감성여행

민족의 가슴 벅찬 광복의 기쁨이 고스란히 담긴 부산 광복기념관부터

6.25 전쟁 당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알록달록한 벽화와
상쾌한 풍경이 매력적인 통영 서피랑까지!
역사 체험과 힐링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



총 경로·소요시간



차량으로 이동 시 총 1시간 50분 가량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1박 2일간의 여행 일정에 적합합니다!

(대표 체험거리 : 부산 세앗호떡 / 비범당면 남해 돌창고 프로젝트)

추천 숙박





민족의 얼을 지킨 위인들의 이야기
해돋이 역사기행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 운동가 최준 선생의 정신을 느껴보자!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관부터 최준 선생 생가를 거쳐
장생포 고래문화마을까지!!
먼 옛날부터 근대의 문화와
생활까지 엿볼 수 있는
알차고 뜻 깊은 역사기행!



총 경로·소요시간



차량으로 이동 시 총 2시간 10분 가량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1박 2일간의 여행 일정에 적합합니다!
(대표 체험거리 : 포항 죽도시장 대게, 울산 복순도가)

추천 숙박



운동주의 삶과 광활한 자연
남도바닷길

오늘 밤에도 별에 바람이 스치운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에 굴복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저항 시인 운동주.
그의 올곧은 정신을 느껴보고 광활한 바다와
습지에서 시원한 힐링까지!!



총 경로·소요시간



차량으로 이동 시 총 1시간 40분 가량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1박 2일간의 여행 일정에 적합합니다!
(대표 체험거리 : 광양 불고기, 보성 녹차아이스크림)

추천 숙박





조선을 건립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셨던 전주 경기전부터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민족의 보물 창고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부안 청자박물관까지!
시간을 넘나드는 신비로운 여행!



총 경로·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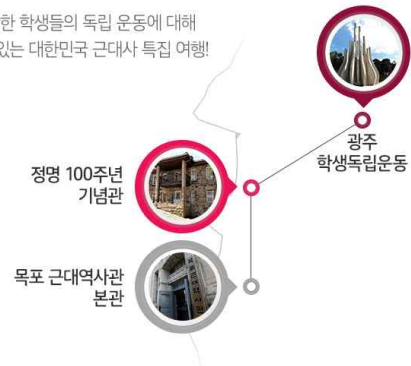
차량으로 이동 시 총 2시간 5분 가량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1박 2일간의 여행 일정에 적합합니다!
(대표 체험거리: 전주 객리단길, 군산 단소울 공연)

추천 숙박



목포 근대전시관에서 보는 20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부터

일제에 저항한 학생들의 독립 운동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근대사 특집 여행!



총 경로·소요시간



차량으로 이동 시 총 1시간 15분 가량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1박 2일간의 여행 일정에 적합합니다!
(대표 체험거리: 목포 출추는 바다분수, 광주 1913송정역 아시장)

추천 숙박





독립 운동의 거점, 공주 제일교회를 시작으로

백제의 숨결이 담긴 공주 공산성,
근현대사를 한눈에 확인하는
대전 근현대사전시관까지!
과거부터 근대까지 이어져온
역사를 경험하는 여행!



총 경로·소요시간



차량으로 이동 시 총 1시간 가량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1박 2일간의 여행 일정에 적합합니다!
(대표 체험거리 : 공주 계룡산 도예촌, 대전 두루치기)

추천 숙박



압도적인 시원함을 자랑하는 신비롭고 서늘한 영월 고씨동굴부터

가슴이 뻥뚫리는 만천하 스카이워크 짙라인 타기!
마지막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인
의병들의 올곧은 정신까지 느껴보자!



총 경로·소요시간



차량으로 이동 시 총 1시간 40분 가량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1박 2일간의 여행 일정에 적합합니다!
(대표 체험거리 : 단양 패러글라이딩, 제천 솔티맥주)

추천 숙박



가을철 영농 대비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 2019.8.12.~9.6일까지, 전국 125개 시·군 순회 수리-

《 주 요 내 용 》

◇ “2019년 가을철 전국 농업기계 수리봉사” 실시

- 수확기에 많이 이용하는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등)를 중심으로 점검·정비하여 수리
- 7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62개 수리반(기사 89명, 차량 62대)으로 편성, 125개 시군의 338개 읍·면 대상으로 실시

◇ 개요

- 실시기간 : 2019. 8. 12. ~ 9. 6(4주간)
- 실시지역 : 전국 125개 시·군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건조기, 스피드 스프레이어(SS기) 등 가을철 사용 농업기계 중심
- 참여업체 : 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LS엠트론(주), 아세아텍(주), 신흥기업(주), 한성T&I(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인들이 가을철 영농기에 농업 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농철이 다가오기 전에 “2019년 가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
- 순회수리봉사반은 7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I)에서 수리기사 89명, 차량 62대를 동원하여 62개반으로 편성·실시된다.
-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4주간) 338개 읍·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트랙터, 콤파인, 관리기, 경운기 등 가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점검·정비한다.
- 농업기계 점검 및 정비 서비스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부품 및 운반 비용은 실비로 받으며, 현장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에 이동시켜 수리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이번 순회수리봉사 기간 중에는 처음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이 동참하여 ‘농기계 연료 품질점검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석유관리원은 시료(농기계 연료) 채취 후 농업인에게 품질검사결과를 알려주고 소비자신고제도 등을 안내한다.
- 지역별 순회수리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군청,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다회용컵, 어디 있나요? 우리 다함께 써봅시다

- 환경부-지자체-시민사회, 1회용컵 사용 억제와 다회용컵 생활화를 위한
‘날마다 다회용컵(데일리 텀블러)’ 공익활동 펼쳐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서울시,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8월 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모전교 인근 청계광장에서 여름철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컵(텀블러) 사용 생활화를 위한 ‘날마다 다회용컵(DAILY TUMBLER)’ 공익활동을 진행한다.
- 이번 공익활동은 국민들이 날마다 다회용컵의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총 4가지 행사로 진행한다.
 - 다회용컵을 필수품처럼 쓸 수 있도록 ▲ 다회용컵이 있어야 할 곳은 □다의 □를 채워 넣고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인증하기, ▲ 포장판매(테이크 아웃)된 1회용컵을 수거하면 다회용컵으로 바꿔주는 ‘헌 컵 줄게, 새 다회용컵(텀블러)다오’, ▲ ‘날마다 다회용컵’ 사용 인증 시 경품 증정하기 ▲ 필요 이상으로 소유한 다회용컵을 기부하여 취약계층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토록 하는 ‘잠자는 다회용컵’ 깨우기 등으로 구성됐다.
 - 이번 행사는 음료의 포장판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사무실 밀집지역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공원, 8월 12일부터 이틀간 상암 디엠씨(DMC) 거리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8월 중 다용도 주머니 확산 홍보도 전개할 예정이다.

○ 전통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속비닐 대용 다용도 주머니 사용을 권장하고 재활용 소재로 다용도 주머니*를 제작하여 재활용(업사이클링) 제품 체험 기회를 갖고 폐기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다용도 주머니는 서울재활용플라자 입주기업 큐클리프와 연계, 페트병 원사 리사이클 원단 소재로 제작(생활방수 기능)

□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단지, 사회관계망서비스, 국가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 중이며, 향후 관련 업체들과의 자발적 협약 등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민사회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2018년부터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 1만 360곳 매장의 1회용컵 사용량은 2018년 7월 206톤에서 2019년 6월 51톤으로 75% 감소했고 제과점 1회용 비닐 봉투는 2018년 1~5월 9,066만 장에서 2019년 1~5월, 1,479만 장으로 84% 감소하는

등 팔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무심코 사용한 1회용품을 다 회용품으로 바꾸는데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1회 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와 다용도 주머니를 쓴다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보다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행사 계획.
2. 피서철 1회용품 줄이기 등 홍보계획.
3. 질의응답. 끝.

□ 행사 개요

- (일시) '19. 8. 6(화) 11:20 ~ 11:50
- (장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광장 모전교 인근(종로구 서린동 14-1)
- (참석자) 환경부(차관), 서울시(기후환경본부장), 자순연(이사장) 등
- (내용) '텀블러가 있어야 할 곳은 □다' SNS 인증, '헌 컵 줄게, 새 텀블러 다오' 수거된 1회용컵과 텀블러 교환, '데일리 텀블러' 사용 인증, '잠자는 텀블러' 기부 등 "데일리 텀블러" 캠페인 실시

□ 행사 세부 일정

시간	구분	내용
11:17~11:20	{3}	- 내빈도착 및 안내
11:20~11:25	(5)	- 식순 및 내빈 소개
11:25~11:35	(10)	- 인사말씀
11:35~11:40	(5)	- 이벤트 참여 및 퍼포먼스 · '텀블러가 있어야 할 곳은 □다' 메시지 보드 자필 작성 및 사인 · 포스트잇 포토월 앞 단체사진 촬영
11:40~11:45	(5)	- 참여 시민 대상 경품 증정 · '데일리 텀블러 증정' 및 텀블러 사용 독려
11:45~11:50	(5)	- 전시물 관람 · '수거된 1회용 컵' 및 '기부된 텀블러' 등 관람
11:50~	-	- 행사 종료 및 환송

① 데일리 텀블러 캠페인

- 일시 : 8.5(월) ~ 8.13(화), 총 6회
- 장소 : 커피 테이크아웃 수요가 많은 수도권 사무실 밀집지
- 내용 : 텀블러 제공 & 텀블러 기부 또는 교환
 - ① ‘텀블러가 있어야 할 곳은 □□다’ SNS 인증 이벤트
 - ② ‘헌 컵 줄게, 새 텀블러 다오!’ 교환 이벤트
 - ③ ‘데일리 텀블러’ 인증 이벤트
 - ④ ‘잠자는 텀블러’ 기부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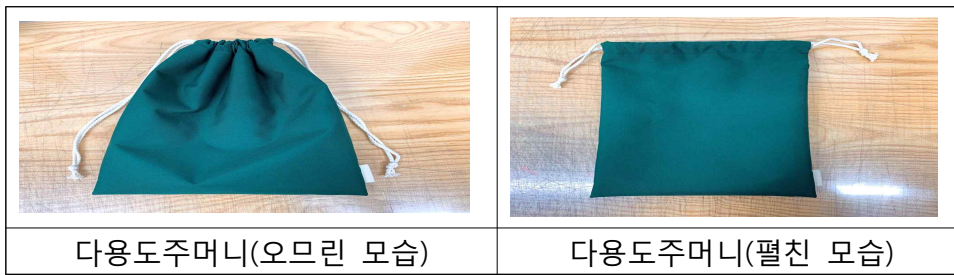
○ 세부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시간	장소
1·2회차	8. 5(월) ~ 6(화)	11:00 ~ 14:00 (점심시간 3시간)	시청 청계광장
3·4회차	8. 8(목) ~ 9(금)		여의도공원
5·6회차	8. 12(월) ~ 13(화)		상암 DMC 거리

* 일시 및 장소는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우천 시 행사 연기)

② 다용도 주머니 확산 캠페인

- 일시 : 8월 넷째주, 10:00 ~ * 공동참여기관 협의과정 중 변동 가능
 - 장소 : 망원시장(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11-2)
 - 참여기관 : 서울시, NGO(자원순환연대, 새마을부녀회 등), 시장 상인회 등
 - 내용 :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속비닐 대용 다용도 주머니 필요성 홍보 및 증정을 통해 다용도 주머니 사용 생활화 독려
 - 재활용 소재로 만든 다용도 주머니 증정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 체험 기회 부여 및 인식 전환 유도
- * 다용도 주머니는 서울재활용플라자 입주기업 큐클리프와 연계, 페트병 원사 리사이클 원단 소재로 제작(생활방수 기능)



③ 일회용품 사용 실태 일제 점검(지자체) 및 홍보

- 관련법령 개정, MOU 체결, 지자체 및 국민들의 적극 협조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집중 현장 점검 및 홍보 요청(8~9월)
 - * 점검내용 : ①(7~8월)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②(8~9월) 대규모 점포 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또는 무상제공 여부 등
- 포스터, SNS 채널(페이스북, 유튜브 등), 국가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추진
 - * (포스터) 1회용 컵, 비닐봉투 사용 억제 포스터 배포(지자체, 전통시장 등)
 - * (카드뉴스·각색보도) 일회용품 감축 필요성, 사례별 Q&A 등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카드뉴스 및 블로그 각색보도 제작
 - * (전광판) 국가 및 공공기관 전광판, KTX·승강기 모니터 등을 활용, 홍보 영상물 게재
 - * (유튜브) “1회용품 없이 여름휴가 다녀오기” 영상 공개 등

④ 향후 계획

- 면세점 포장 비닐류 줄이기 자발적 협약 추진
 - * 롯데·신라·신세계(점유율 90% 이상)의 자발적 노력 등 현황 파악 후 MOU 추진
- 교정시설과 연계한 클리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바구니 재사용 확대·활성화 추진(환경부·법무부 MOU 체결 등 추진)
- 시민사회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 수시·정기 모니터링 실시
 - * 자원순환사회연대를 중심으로 9월까지 집중 실시

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가?

- 관련업계와의 자발적 협약('18.4,5,7월) 및 법 개정,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노력
-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대폭 감소함
 - * ('18.5월 협약체결 이후 성과) 매장 81% 이상 다회용 컵 사용 정착, 1회용품 수거량이 '18년 7월 206톤에서 '19년 6월 51톤으로 75% 감소
- (대형마트) 속비닐 구매량 약 41% 저감
 - * '17년 하반기 사용량 401톤 → '18년 하반기 사용량 238톤
- (제과점) 비닐봉투 사용량 79% 감소, 무상제공금지 시행 이후 84% 감소
 - * '17.10~'18.5월 14,158만장 → '18.10~'19.5월 3,033만장(78.6% 감소)
 - ** '18.1~5월 9,066만장 → '19.1~5월 1,479만장(837% 감소)
- 대형마트·중형 슈퍼마켓(165㎡ 이상)의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규제 시행('19.4~),

2. 매장 밖 1회용컵에 대하여 공익활동 이외의 다른 노력은?

-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대체품 있는 일회용품 퇴출 로드맵 구축에 대해 87.5% 동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92.3%가 엄격한 규제 필요하다고 응답('19.4, 그린피스 대국민인식도 조사)
- 우선적으로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테이크아웃 등 1회용 컵 사용 시 이를 수거, 재활용하는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 폭염경보 발령(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 지난 6.3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 7.31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 '18년에는 폭염 주의보(33℃), 경보(35℃) 2단계로 분류하였으나, '19년에는 폭염 온도 상승에 맞춰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함

□ 고용노동부는 ①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②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③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고

- 특히,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애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폭염이란?

-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기준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2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늘	■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돛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를 발령하면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를 발령하면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 근무 시간을 조정(근무 시간: 9시~18시 → 5시~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 작업을 피하십시오 •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같은 온도 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땀이 증발 되지 않아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 지수나 더위 체감 지수를 활용하여 휴식 시간을 조정하세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에서 날씨누리>생활과산업>생활기상정보) •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숙지하십시오.

위험 단계	대응 요령
관심 31°C	- 질병 예방(식중독, 장티푸스)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 관리에 유의 -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 노동자가 실 수 있는 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주의 33°C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노동자가 실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등으로 옥외작업 자제 - 옥외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 수면 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경계 35°C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노동자가 실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 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 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 작업 제한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 수면 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심각 38°C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노동자가 실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하기 - 옥외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조치 작업 등을 할 경우에도 휴식 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 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 작업 제한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 수면 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4 응급 상황을 대비하세요.

■ 발생 전 동료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온열 질환 초기 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 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노동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 | 하세요.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건강 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해양레포츠 즐기면서 사회성·도전정신 길러요!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및 종사자 연합캠프 실시(8.12~14)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소년법 처분을 받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및 종사자 캠프”를 8월 12일(월)~14일(수)에 개최한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개요 >

-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
- ▶ (목적)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
- ▶ (현황) 18개소('19년 최초 국비지원, 신규)

- 경북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그간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위기 청소년들에게 해양안전 및 선박체험 프로그램 등을 경험케 함으로써 유대감과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청소년 해양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세부 프로그램 : 붙임 참고

- 아울러, 올해 최초로 국비 지원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고, 사업지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한 간담회도 진행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복무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 회복지원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 황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확대·제공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및 종사자 캠프 개요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개요

□ 운영 개요

- (목 적) 청소년·종사자 연합캠프를 통한 유대감 강화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
- (일 시) 남자 2019.8.12(월) ~ 2019.8.13.(화)
여자 2019.8.13(화) ~ 2019.8.14.(수)*

* 회복지원시설 청소년 특성 고려, 남녀 구분 운영 및 종사자 상주

- (장 소)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상북도 영덕군)
- (대 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및 종사자 113명
- (주최/주관)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세부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 1일차 >			
~14:00		○ 캠프 입소	
14:00~14:50	(50')	○ 생활 안내 및 숙소 이동	
14:50~15:30	(40')	○ 입소식 및 안전교육	
15:30~17:30	(120')	○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① 해양안전(선박퇴선) ② 선박항해 체험	
		○ 【시설장】 교육 -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개입 방안	
17:30~19:00	(90')	○ 저녁식사	
19:00~20:30	(90')	○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① 해양안전(블루원디요트) ②선박탈출 체험	
		○ 【시설장】 자문회의	
20:30~21:30	(60')	○ 팀웍 활동	
< 2일차 >			
09:30~12:00	(150')	○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12:00~		○ 식사 및 캠프 퇴소	

□ 목 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소년법 제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6개월)

□ 추진 경과

- 사범형 그룹홈(청소년회복센터) 운영('10년~)
※ 법원에서 센터장을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1호 처분 소년 위탁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근거 마련('16.5.29.) * 시행 : '16.11.30.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최초 국비 지원('19년~)

□ 주요 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위탁 청소년의 신체·정서적 치유 등 사회서비스 지원

□ 운영 현황

- 총 18개소(남자 11개소, 여자 7개소) ('19.8월 기준)

혁신도시 이전기업 혜택 대폭 확대... 수도권 지역 17개사 이전 완료

-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총 17개 업체*가 이전하였다.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2018년 8월 ‘혁신도시 기업 입주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10개 혁신도시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 광주·전남 9개사, 경북 3개사, 경남 3개사, 부산 1개사, 강원 1개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상반기 10개 혁신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 또한 기업이전과는 별개로 혁신도시 상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이전을 위한 21개 업체와 MOU체결*, 유망 중소기업 5개사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투자유치를 이끌었으며, 53개 기업이 참여한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간담회*** 928개 기업과 함께 투자유치 설명회****를 6회 개최하였다.

* 광주·전남 15개사, 경남 6개사, ** 광주·전남 2개사, 경북 3개사

*** 전남 1, 충북 2, ** ** 전남 1, 울산1, 강원1, 충북2, 경북1

□ 혁신도시 상반기 주요성과는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324개사)나 증가 하였으며, 혁신도시
별로는 경남, 광주·전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산, 대구, 충북,
경북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클러스터 용지분양은 1,990천㎡로 계획(3,124천㎡)대비 63.7%에 달하였다.

* 증가사유 : 경남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인 윈스타워('17.11월), 드림IT벨리('19.3월) 준공,
광주·전남은 한국전력 관련 연관기업 등 이전으로 증가

※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 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없어서 저조하나,
전북테크비즈센터('19년 5월 착공)와 전북금융센터(계획중)가 건립될 경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박진열 과장은 “호수에서 헤엄치는 오리를
보면 얼핏 평온한 듯 보이지만, 물밑에서 아주 치열하게 발을 움직
이듯,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활발한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중요한
만큼, 산업지원 확대를 위해 타 부처 특구지정* 및 각종 공모사업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6월. 경남(진주)혁신도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9.7월. 부산, 강원,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18.7월 전남(나주)혁신도시 투자선도지구 선정

- 아울러 '19. 7월부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는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정하여, 그동안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만 지원하던 임차료 등 지원을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의 경우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연차별 차감하여 지원하던 방식을 차감없이 3년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유망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부지매입 뿐만 아니라,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많은 이전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1.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한 투자유치 입주기업(17개 업체)

○ 부산 1, 광주·전남 7, 강원 1, 경북 3, 경남 3

시 도 명	기업명	소 재 지		비고
		이전 전	이전 후	
부산	(주) ○ ○ ○ ○ ○	서울	부산센텀	
광주·전남	(주) ○ ○ ○ ○ ○	서울	나주 혁신도시(한전)	
“	(주) ○ ○ ○ ○ ○	서울	나주 혁신도시(한전)	
“	(주) ○ ○ ○ ○ ○	서울	혁신도시	
“	○ ○ ○ ○ (주)	서울	“	
“	(주) ○ ○ ○ ○ ○	서울	“	
“	(주) ○ ○ ○ ○ ○	서울	“	
“	(주) ○ ○ ○ ○ ○	서울	“	
“	(주) ○ ○ ○ ○ ○	서울	“	
강원	(사)○○○○○	서울	강원원주 혁신도시	
경북	○ ○ ○ ○ (주)	경기 화성	경북 김천	
“	(주)○○○○○	경기 용인	경북 김천	
“	○ ○ ○ ○ ○	경기 부천	경북 김천	
경남	○ ○ ○ ○ ○	경기	진주	
“	○ ○ ○ ○ ○	서울	진주	
“	(주) ○ ○ ○ ○ ○	경기	진주	

2. MOU체결 현황(21개 업체)

○ 광주·전남 15, 경남 6

시도 명	기 업 명	소 재 지	업 종	체 결 일	비고
광주·전남	○○○○○㈜	—	• 에너지신산업(전력ICT) — SW개발 및 시스템운영	2019.4.26.	한전
“	㈜○○○○○	—	• 에너지신산업(전력ICT) — SW개발 및 시스템운영	2019.4.26.	“
“	㈜○○○○○	경기	• 전력기자재 제조 — 전기장비 제조	2019.6.25.	“
“	㈜○○○○○	인천	• 에너지신산업(신재생) — 태양광설비, ESS제조	2019.6.25.	“
“	㈜○○○○○	—	• 에너지신산업(전력ICT) — SW개발 및 시스템운영	2019.6.25.	“
“	○○○○○ (주)	—	• 에너지신산업(신재생) — 태양광 제어장치 등	2019.6.25.	“
“	㈜○○○○○ ○	대구	• 에너지신산업(신재생) — 태양광설비 등	2019.6.25.	“
“	㈜○○○○○	서울	• 에너지신산업(전력ICT) — SW개발 및 시스템운영	2019.6.25.	“
“	㈜○○○○○	—	• 에너지신산업(전력ICT) — SW개발 및 시스템운영	2019.6.25.	“
“	㈜○○○○○	전남	• 에너지신산업(신재생) — 태양광설비, ESS제조	2019.6.25.	“
“	㈜○○○○○	—	• 에너지신산업(전력ICT) — SW개발 및 시스템운영	2019.6.25.	“
“	㈜○○○○○	—	• 에너지신산업(전력ICT) — SW개발 및 시스템운영	2019.6.25.	“
“	㈜○○○○○	경기	• 에너지신산업(신재생) — 태양광패널 등	2019.6.25.	“
“	㈜○○○○○ ○	경기	• 에너지신산업(전력ICT) — VR/AR/MR 시스템 개발 등	2019.6.25.	“
“	○○○○○	전남	• 에너지신산업(신재생) — 태양광 부대설비 제조	2019.6.25.	“
경남	○○○○○	경남	항공우주산업	‘19.4.2	항공부품
“	㈜○○○○○	서울	연소장치 및 관련기기 제조	‘19.4.24	세라믹 부품
“	○○○○○ (주)	대전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제조업	‘19.4.24	세라믹 부품
“	○○○○○ (주)	경남	항공기 부품제조, 그 외 자동차용 신품제조	‘19.4.24	항공 부품
“	㈜○○○○○	충북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	‘19.4.24	세라믹 소재
“	㈜○○○○○	경남	착탈식 보온재	‘19.4.24	세라믹 부품

3. 기업방문(5개 업체)

○ 광주·전남 2, 경북 3

시도명	기업명	방문일자	주요내용
광주·전남	(주)○○○○	2019.2.11.	유망 중소기업 혁신도시 투자유치
“	○ ○ ○ ○ (주)	2019.2.20.	유망 중소기업 혁신도시 투자유치
경북	○ ○ ○ ○	2019.2.12	기업이전검토
“	○ ○ ○ ○ (주)	2019.3.15	기업이전검토
“	(주)○○○○	2019.5.14	기업이전검토

4. 간담회 실시(3회)

○ 전남 1, 충북 2

주관(주최)	일자	참가기업 수	주요내용	비고
전남(혁신도시지원단)	2019.4.22.	10개 기업	혁신도시 투자유치 간담회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3.14.	15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	2019.6.27.	28개 기업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5. 투자유치설명회(6회)

○ 전남 1, 울산 1, 강원 1, 충북 2, 경북 1

주관(주최)	일자	참여기업 수	주요내용	비고
전라남도	4.26.	150개 기업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 투자협약체결, 투자유치 상담 등	
울산광역시	2. 21	18개 산하·유관기관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및 용지 현황 안내 -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분양및입주 상담	
강원도 투자유치과	4. 26	400여개 기업 (건설, 전기, 사무기기 제작 업체 등)	◦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19” 전시회 참가기업 대상 홍보 - 강원혁신도시 투자 정보제공 등 1 : 1 맞춤형 투자 상담	
충북도	1. 29	100개	경제인 초청 투자설명회	
“	4. 10	200개	수도권 CEO 초청 투자설명회	
경북도 김천시	4. 24.	60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구매 및 투자 유치 상담	

□ 용지 분양 현황

(단위 : 천㎡, %)

도시별	계 획		분 양			미분양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분양율	필지수	면적
합 계	462	3,124	345	1,990	63.7	117	1,134
대 구	142	858	116	630	73.4	26	228
광주전남	84	415	69	340	81.9	15	75
울 산	12	141	7	87	61.7	5	54
강 원	16	143	10	82	57.3	6	61
충 북	74	684	43	216	31.6	31	468
전 북	15	209	10	139	66.5	5	70
경 북	54	307	30	160	52.1	24	147
경 남	39	216	38	205	94.9	1	11
제 주	26	151	22	131	86.8	4	20

□ 용지 입주 현황

(단위 : 천㎡, %)

도시별	입 주 현 황			향 후 계 획					
				착 공		준 공		입 주	
	필지수	면적	입주율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127	710	35.7	175	985.6	18	141	0	0
대 구	78	419	66.5	5	20	3	7	0	0
광주전남	13	60	17.6	54	256	2	23	0	0
울 산	4	43	49.4	2	34	1	11	0	0
강 원	3	8	9.8	6	61	1	13	0	0
충 북	9	50	24.8	31	149	3	17	0	0
전 북	3	31	22.3	7	108	0	0	0	0
경 북	5	30	18.8	22	111	3	19	0	0
경 남	10	62	30.2	27	147	2	7	0	0
제 주	2	7	5.3	21	99.6	3	44	0	0

□ 산학연클러스터 기업 입주 현황

○ 총 괄

(단위: 개사)

구 분		입주완료	'18년12월 말	'19년 입주 (상반기)	비 고
합 계		1,017	693	324	
혁신 도시	클러스터내	776	498	278	
	클러스터외	241	195	46	

※ 혁신도시 외(산단 등) 입주기업 : 100개사(부산 9, 광주·전남 86, 전북 2, 경북 3) 별도

○ 혁신도시별

(단위: 개사)

구 분	합 계 (A+B)	혁신도시내		2019년 입주 (상반기)
		클러스터내(A)	클러스터외(B)	
합 계	1,017	776	241	324
부 산	142	0	142	25
대 구	129	129	0	19
광주전남	242	175	67	69
울 산	34	33	1	0
강 원	43	42	1	3
충 북	40	26	14	16
전 북	2	2	0	0
경 북	30	15	15	7
경 남	355	354	1	185
제 주	0	0	0	0

* 부산시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가 없어, 업무용지 등에 기업 입주 중

□ 입주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소, 2019년 상반기)

혁신 도시	합계	금융 보험	영상 게임	대학 연구소	병원	의료기기 제 약	전기 분야	지식 산업	기타 제조
합계	1,017	25	118	26	1	126	105	343	273
부산	142	24	117	0	0	0	0	0	1
대구	129	0	0	11	0	116	0	0	2
광주 전남	242	0	0	1	0	0	83	126	32
울산	34	0	0	4	0	0	0	0	30
강원	43	0	1	0	0	5	1	27	9
충북	40	1	0	8	0	0	3	20	8
전북	2	0	0	0	0	0	0	0	2
경북	30	0	0	0	0	2	0	21	7
경남	355	0	0	2	1	3	18	149	182
제주	0	0	0	0	0	0	0	0	0

구분	현행	개 선 안																							
대 상 및 요 건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내 입주기업	혁신도시내 입주기업 단, 산학연클러스터가 아닌 경우 지 자체와 MOU체결 기업																							
지 원 시 기	입주 후 지원 부지 등 이차지원 신청은 건축허가 후	입주 후 지원 부지 등 이차 지원기준일은 건축허가일																							
지 원 기 간	최초 지원 시점부터 3년간	최초 지원 시점부터 3년간 단, 가이드라인 개선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내용은 잔여기간에만 적용																							
① 입 주 기 업 임 차 료	▪ 월 임차료에 대한 지원 비율 금액별·연차별 차등 적용 <table><tr><th rowspan="2">월 임차료</th><th colspan="3">연차별 지원기준(%)</th></tr><tr><th>1년차</th><th>2년차</th><th>3년차</th></tr><tr><td>100만원 이하</td><td>80%</td><td>70%</td><td>60%</td></tr><tr><td>100~200만원</td><td>70%</td><td>60%</td><td>50%</td></tr><tr><td>200~300만원</td><td>60%</td><td>50%</td><td>40%</td></tr><tr><td>300만원 초과</td><td>50%</td><td>40%</td><td>30%</td></tr></table>	월 임차료	연차별 지원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100만원 이하	80%	70%	60%	100~200만원	70%	60%	50%	200~300만원	60%	50%	40%	300만원 초과	50%	40%	30%	▪ 연차별 차감율 폐지, 금액별 일률 적용 - 100만원 이하: 80%이내 - 100~200만원: 70%이내 - 200~300만원: 60%이내 - 300만원 초과: 50%이내 ※ 월 임대료는 비교가능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내 인정
월 임차료	연차별 지원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100만원 이하	80%	70%	60%																						
100~200만원	70%	60%	50%																						
200~300만원	60%	50%	40%																						
300만원 초과	50%	40%	30%																						
② 대 출 이 자 지 원	▪ 대출범위 : 부지 또는 집단입지 시설 매입대금의 이자 ▪ 월 이자액 지원에 대한 지원비율 금액별·연차별 차등 적용 <table><tr><th rowspan="2">대출금 원금</th><th colspan="3">연차별 지원기준(%)</th></tr><tr><th>1년차</th><th>2년차</th><th>3년차</th></tr><tr><td>6억원 이하</td><td>80%</td><td>70%</td><td>60%</td></tr><tr><td>6~12억원</td><td>70%</td><td>60%</td><td>50%</td></tr><tr><td>12~18억원</td><td>60%</td><td>50%</td><td>40%</td></tr><tr><td>18억원 초과</td><td>50%</td><td>40%</td><td>30%</td></tr></table>	대출금 원금	연차별 지원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6억원 이하	80%	70%	60%	6~12억원	70%	60%	50%	12~18억원	60%	50%	40%	18억원 초과	50%	40%	30%	▪ 대출범위 : 부지 및 건축비, 또는 집단입지시설 매입대금의 이자 ▪ 연차별 차감율 폐지, 금액별 일률 적용 - 6억원 이하: 80%이내 - 6~12억원: 70%이내 - 12~18억원: 60%이내 - 18억원 초과: 50%이내
대출금 원금	연차별 지원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6억원 이하	80%	70%	60%																						
6~12억원	70%	60%	50%																						
12~18억원	60%	50%	40%																						
18억원 초과	50%	40%	3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위한 해시태그(#) 공모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해시태그*’ 공모전을 개최한다.

* 해시태그(hash tag): ‘#’ 뒤에 특정 단어를 넣으면 연관된 글, 사진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게시물을 찾을 때 유용

- 이번 공모전은 8월 12일(월)부터 8월 25(일)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너의 해시태그(#)를 보여줘’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과 관련된 해시태그 문구(국·영문)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응모를 원하는 경우, 외교부 공식 인스타그램(@mofa_kr)의 다이렉트 메시지(DM)나 이메일(greengrowth@mofa.go.kr)로
①해시태그 문구 및 의미 ②응모자 성함 ③연락처 ④“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제출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차 심사를 거쳐 4개의 해시태그 문구를 선정하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직접 최종 1, 2, 3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1등에게는 50만 원, 2등에게는 30만 원, 3등에게는 2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지며, 공모전 참가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기프트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당선작을 해양정화 캠페인 및 해양외교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재외공관 누리소통망(SNS) 등에서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1. 공모전 명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해시 태그 공모전
2. 공모주제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너의 해시태그(#)를 보여줘!
3. 공모기간 : 2019. 8. 12.(월) ~ 8. 25.(일) / 2주 간
4. 접수방법 : 외교부 공식 인스타그램(@mofa_kr) 다이렉트 메시지(DM) 또는 이메일(greengrowth@mofa.go.kr)로 다음 4가지 사항 송부
 - ①해시태그 문구(국·영문으로 한정) 및 의미 ②응모자 성함 ③연락처 ④“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5. 세부일정
 - 해시태그 공모작 접수 → 1차 선발 → 1차 선정작에 대해 인스타그램 투표 실시(8.28.~30.) → 최종작 선정
6. 당선작 발표 : 2019. 9. 4.(수)
7. 유의사항
 - 개인정보는 상금 지급(계좌번호, 예금주이름, 은행명), 제세공과금 처리(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경품 배송(이름, 연락처)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당선자에게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상금의 경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입니다.
 - 당선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 권한은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당선된 해시 태그 문안이 2명 이상의 응모자가 동일하게 제시하여 중복 당선된 경우, 접수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타 공모전 수상작 및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상 이후에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예정)
 - 작품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가 지적재산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을 침해한 작품으로 판명 시 심사 제외, 수상무효 처리되며,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